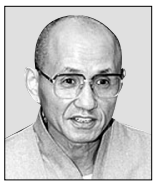


일주문



우물관리시스템 사례 발표 지구총공생회 이사장 율주 스님은 10월 13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리는 '소통과 나눔 파트너십 페어'에서 우물관리시스템 사례를 발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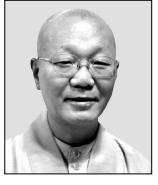
생명나눔 산사음악회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10월 11일 오후 3시 남양주 불암사에서 창립 20주년기념 생명나눔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02)734-8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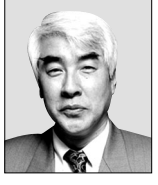
진각복지재단, 전체직원 연수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 회정 정사는 9월 23일부터 1박 2일간 대전 용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산하복지시설 전체 직원연수를 진행했다.



568돌 한글날 기념 토요법회 동국대 정각원 원장 법타 스님은 6월 4일 568돌 한글날을 맞아 티벳박물관 장현장 스님 초청 특별 토요법회를 봉행했다.



민추는 8차 월례강좌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지홍 스님은 10월 15일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8차 월례강의를 진행했다.



산스크리트 동영상 강좌 제공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최근 국내 대학 최초로 초급 산스크리트 공개강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제공했다.

진각종, 제12회 한마음체육대회



진각종 서울교구청과 총금강회 서울지부는 9월 27일 경기도 미사리 경정경기장 위업장에서 제12회 서울교구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신교도들의 화합을 도모했다.

이날 체육대회는 이날 체육대회는 대만다라(탑주·명선·혜원·덕화심인당), 삼매야만다라(밀가·무애·능인·장엄심인당), 법만다라(행원·남부·법륜·밀업·방등심인당), 갈마만다라(유가·실상·관음·대원·안산심인당) 등 4팀으로 나눠 놀이·체험마당과 공연마당 및 장기자랑, 족구를 비롯한 체육마당 등을 진행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가족지원 위한 불교 모델 개발”

김의숙 가족지원센터 초대센터장



가족지원센터 10월 2일 창립 불자가족 가정생활 역량 강화 목표 가족애착놀이·미혼모학교 등 진행

“보다 많은 불자들이 가족생활 역량을 높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이웃 가족들에게도 마음을 열고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불자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립된 가족지원센터 김의숙 센터장(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이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불교여성개발원과 (사)지혜로운여성은 2010년부터 △가족애착놀이 지도자 과정 △청소년 미혼모 학교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해오다 올해 2월 가족지원센터 창립을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많은 불자들이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는 있으나 부처님 가르침에 기초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이웃가족과 나누는 실천적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자가족의 가정생활 역량을 강화시켜

행복한 가족친화사회를 구현하고자 창립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가족지원센터는 △교육팀 △한부모지원팀 △문화팀 △운영팀 등의 조직을 갖추고 다양한 교육 및 문화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김 센터장은 “부처님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가정의 수행문화 정립, 결혼예비교육, 태교, 좋은 부모되기 등의 교육과 함께 가족생활교육 전문가를 양성할 것”이라며 “이밖에도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등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펼치는 한편 가족친화적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성존중 문화, 공동체 돌봄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대학시절 서울대총불교학사회에서 개최한 불교수련회에 동참하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광덕 스님과 각별한 인연이었던 그는 스님이 열반 하실 때까지 가르침을 받았고 현재도 광덕 스님이 창건한 불광사를 재적사찰로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다 2005년부터 불교여성개발원 자문위원을 맡아 활동해오다 지난 2월 가족지원센터장 소임을 맡게 됐다.

김 센터장은 “올해는 청소년 한부모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도당학교를 후원하는 사업 진행과 함께 센터의 기틀을 잡는 데 주력했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문화사업을 펼치고 한부모 가족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불교계 모델을 만들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역사깃든 절에 성보 한점 없는게 말이되나”

서산 부석사 총무 원우 스님



불상제자리 봉안위 조사단 3차례 대마도 현장 방문 왜구 서산 약탈 기록 확보

지난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에서 밀반입된 서산동관세음보살좌상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문화재청이 지난 9월 10일 서산 부석사에서 봉안됐다 알 수 없는 경로로 일본 대마도로 건너간 불상 2점의 반출경위를 조사하는 위원회 구성 계획을 발표했다. 담당이 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봉안위 소속 원우 스님(서산 부석사 총무)은 10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근거를 들어 정당한 소장경위를 밝히는 의무를 이행한다면 부석사는 불상의 일본 반환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왜구가 불상을 약탈했다는 관련 기록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이즈하라정에서 발행한 역사서인 <아즈하라정지>를 보면 “일본에 들어온 고려 초기 문물 중 불상은 약탈이 아닌가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

또한 <대마의 자연과 문화>라는 책자에는 “1375년 9월 왜구가 서산에서 약탈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도 지적했다. 모두 지난해 3월 발족한 봉안위가 세차례에 걸친 대마도로 현지 답사를 다녀와 확보한 자료다.

원우 스님은 “부석사는 창건 이래 한 번도 폐사된 적이 없지만 오래된 성보문화재가 한 점도 남아있지 않다”며 “사찰에서 공

과 예배의 대상인 불상을 교류품이라마다 넘겨주는 것이 이치에 닿는가”라며 되물었다.

이어 “고려시대 당시 부석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다. 왜구가 출몰하면 관군이 출동하는데는 2시간이 넘게 걸렸던 반면 왜구는 10분내로 바다로 도망칠 수 있었다”며 당시 지리적 요건상 약탈이 쉬이 일어날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돼 있던 관세음보살좌상은 “1330년(고려 충선왕 원년) 영원토록 서산 부석사에 봉양, 공양하고자 서원한다”는 내용의 복장 조성문이 발견된, 제작 장소와 연대를 알 수 있는 몇 안되는 희귀한 고려 불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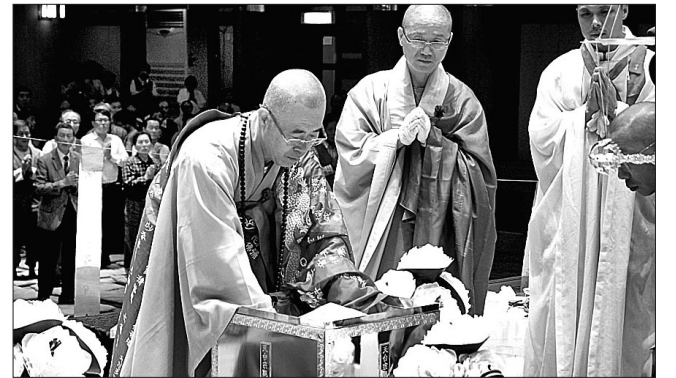
봉안위는 “대마도 현장조사 당시 관리나 주변 경계가 너무 허술해 조사단이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다”며 향후 일본에서의 문화재관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원우 스님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가 격이 맞지 않는 곳에서 출처도 모른채 방치되다시피 있었다는 사실이 애석하다”며 “이번 사안은 불법문화재 환수에 있어 정부 원칙을 세우는 구간이 될 것이다. 정부가 올바른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관문사, 옥불대보탑 복장 봉안

9월 30일, 경천사 10층석탑 양식 계승 발전



지난 5월 기공식을 마친 서울 관문사 옥불대보탑에 진신사리를 포함한 복장물이 봉안됐다.

관문사는 9월 30일 경내 4층 옥불보전에서 ‘옥불대보탑 복장 봉안 법요식’을 봉행했다. 법요식에는 관문사 주지 준광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감사원장 용암 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불자 2000여 명이 동참했다. 김주일 기자

법륜 스님, 미국서 100회 강연



세계 100회 강연을 진행중인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의 36번째 강연이 9월 30일 미국 뉴욕주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열렸다. 법륜 스님은 8월 26일~12월 18일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세계 111개 도시를 돌며 115회의 순회강연을 진행했다. 정혜숙 기자

제2회 원각서예대전 전시회



천태종(총무원장 준광 스님)은 9월 27일 오후 2시 단양 구인사 불교천태중앙박물관 컨벤션홀에서 제2회 원각서예대전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 개막식을 봉행했다.

총무원장 준광 스님은 대상 수상자인 이이섭 씨와 최우수상 정승록 씨에게 상패와 상금을, 총무부장 월도 스님은 우수상, 교육부장 정호 스님은 장려상, 김창동 운영위원장은 특선 수상자에게 시상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남경중의학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 정부는 2014년 6월 15일 발표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4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력증명 1부 (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최종석적증명 1부 (영문)
- 여권용사진 10매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4년 10월 31일
-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 팩스 : 02)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남경중의학대학 (南京中醫藥大學) 02)511-1080,2026

천상의 왕국을 찾아서, 부탄

행복한 나라 1순위 부탄, 부탄국왕초청 예인스님과 함께

네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기도드리는 신도들



▲룸비니동산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



◀룸비니동산 입구

- ◆날 짜 : 10월 예정
- ◆모집인원 : 선착순 20명